



#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돌로 막힌 어둠의 입구  
주님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부르신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죽음의 이름을 깨뜨리는 그 한 마디

단단히 묶인 수의와 닫힌 마음 사이로  
하느님의 영이 조용히 숨을 불어넣으신다

우리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영,  
씩어가는 절망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영

나는 아직 무덤 곁에 있건만  
그분은 이미 나를 부르고 계신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당신을 향해 걸어 나가게 하소서

##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3/04/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50,545  
현재 참가 인원 - 104명



##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사순 제4주일 (3/15)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9명	63명	216명	155명	43명	526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116	예물 준비 성가: 220, 512	성체 성가: 166, 168	파견 성가: 280
-------	------------	--------------------	-----------------	------------



## 천주의 성 요한 (2)

**병자 치유의 카리스마 실천  
정신병자로 오해받아 병원에서 채찍질당해  
병자를 정성껏 돌보기 위해 자선의 집 마련**



스페인 콤포스텔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천주의 성 요한은 더욱 기도와 묵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 수타 지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다시 그라나다로 돌아왔다. 그는 엘비라 성문 옆에 성물 가게를 열어 책과 십자가 등 성물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후 천주의 성 요한은 본격적인 회심의 삶으로 접어드는 전환점을 맞는다.

1539년 1월 20일 성 세바스티아노 축일을 맞아 「순교자들의 암자」 성당을 찾은 그는 성 세바스티아노가 보여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용기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성인전을 여러 차례 읽으며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변화된 삶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으로 여겨져 왕립 병원으로 옮겨졌다. 시설이 열악했던 이 병원에서 그는 작은 방에 갇힌 채 옷을 벗긴 상태로 모진 때를 맞는 등, 치료라기보다는 학대에 가까운 대우를 받아야 했다. 당시에는 기둥에 묶어 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미치광이를 치료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다른 환자들을 배려했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그는 이미 마흔다섯 살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퇴원 후 그는 영적 지도자인 아빌라의 요한 신부를 찾

아갔고, 한 달 동안 기도와 묵상 속에서 지도를 받았다. 이어 과달루페 성모 성지를 순례하며 세 달 동안 예로니모회 수도자들이 운영하는 병원과 의학 학교에 머물며 병자 간호의 기본을 배웠다. 당시의 병원들은 오늘날의 병원과는 크게 달랐다. 이름은 병원이었지만 병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병을 전염시키고 악화시키는 곳에 가까웠다. 지저분하고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했으며, 의학적 지식도 부족했다. 요한이 입원했던 그라나다 왕립 병원 역시 병자와 노숙자, 떠돌이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었고, 진심 어린 간호나 봉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비참한 상황에 놓였고,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임종을 재촉당하는 처지였다.

1539년 12월 말, 요한은 모은 돈과 후원금을 바탕으로 루세나 길(Lucena-Gasse)에 「자선의 집」을 열었다. 은인 베네가스(Venegas)의 도움으로 빌린 2층 건물이었다. 그라나다 주교도 침대와 담요를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했다. 요한이 병자들을 돌보는 방식은 당시 병원 환경을 생각하면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 범죄자, 무일푼의 떠돌이, 사기꾼, 불량배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똑같이 대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고, 동시에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 그는 자선의 집에 머무는 이들을 위해 매일 거리로 나가 음식과 구호 물품을 구걸했으며, 후원자를 찾아 그라나다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다. 세사 공작 부인은 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평생의 은인이었다. 또한 그는 그라나다에 잠시 머물던 왕국의 총비서 돈 세바스티안 라미레스 주교에게 병자들을 위한 도움을 청했다. 이 주교는 요

한에게 「천주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수도복을 입도록 했다. 1546년 말, 안톤 마르틴과 페드로 벨라스코에 의해 그라나다 고멜레스 언덕에 두 번째 병원이 세워졌다. 천주의 성 요한은 이러한 사랑의 사도직을 이어가다가 1550년 3월 8일, 「철저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삶을 마감했다.

그는 1630년 9월 21일 교황 우르바노 8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690년 10월 16일 교황 알렉산데르 8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교황 레오 13세는 그를 병자와 병원을 위한 천상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으며, 교황 비오 11세는 1930년 병자를 돌보는 사람들과 그 협회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다. 교황 비오 12세는 1940년 그라나다의 제2 수호성인으로 정했고, 1953년에는 스페인 소방관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다.

천주의 성 요한의 정신에 충실한 수도회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며 병자 치유의 카리스마를 실천하고 있다. 이 수도회는 1571년 교황 비오 5세에 의해 공동체로 인정되었고, 1586년 교황 식스토 5세에 의해 정식 수도회로 승격되었다. 현재 수도회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약 200여 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장애인·노인·노숙자·만성질환자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치료와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지 사항**

**1 십자가의 길 기도**

● 일시 : 매주 금요일 10:00 미사 후  
'재의 수요일' (2/18)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4/2) 미사 전까지 사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Rice Bowl**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을 채워서 성당에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4/26(주일)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사순 판공성사**

● 일시 : 모든 미사 30분 전,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까지 판공 성사가 진행됩니다. 성사 후 고해소 내 바구니에 판공 성사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 바다의 별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22 (주일) 오후 1:00
- 장소 : 성전
- 준비물 : 목주, 뗏세라, 활동 수첩
- 참가 대상 : 활동 / 협조 단원
- 복장 : 성모님께 예를 드리는데 합당한 복장.

**5 구역 음식 봉사/ 구역의 날**

- 일시 : 3/22(주일)
- 음식 봉사 : Edmonds/ Lynnwood 구역
- 메뉴 : 제육볶음 + 된장국

**6 성주간 전례 안내**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 3/28(토) : 오후 7:00
  - 3/29(주일):오전 8:00, 10:00, 오후 5:30  
오전 10:00 교중 미사만 행렬
- \* 오전 11:30 미사 없습니다.**
- 
-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 4/2(목) : 저녁 8:00  
(발 씻김 예식, 수난 감실 성체 조배)
- 
- 성 금요일
- 4/3(금) : 십자가의 길 (오후 3:00)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00)
- 
-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 4/4(토) : 저녁 8:00  
(물 축복, 세례 서약 갱신)  
미사 후 울뜨레야에서 간식 제공 있습니다.
- 
- 부활 대축일 낮 미사
- 4/5(주일) 오전 10:00  
**(오전 8:00, 11:30, 오후 5:30 미사 없음)**  
미사 후 부활 잔치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입당송**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신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에제 37,12ㄹ-14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리겠다.>

**화답송**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제2독서** ..... 로마 8, 8-11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복음 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요한 11,1-4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조희성 유상엽 한씨니 박채룡 김경화 김용현 신 정 신철순 이천우 유주연 안창남 박균조 최수영 양성림 이계숙 이승우 한천혜 광영준 이경원 고광운 김창문 성아람 김종국 장승연 정해영 김병민 이수진 문범기 이정애 장명덕 김병성 서진원 강승호 최선기 유경종 이상철 한데레사 Hyekyong Shin

**[교무금 Push Pay]** 김중대 이경아 백승진 이서영 이재용 최중국 안마슈 안정희 박주원 구미경 김형근 유현주 성효진 황현선 강봉조 이상철 Fico Corp. **[감사 헌금]** 이명희 정순도 **[꽃 봉헌]** 만들레 **[성소 후원회비]** 한춘미 이명희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2차 헌금 Catholic Relief Services Collection	2차 헌금 Northwest Catholic	꽃 봉헌	감사 헌금
6,131.00	\$12,440.00	\$3,937.90	\$1,883.00	\$82.00	\$100.00	\$60.00

본당 설립 50주년 기금 모금 (3/15/26 집계)	김금숙, 안희자, 박수익, 송재민, 조선경	합계 : \$3,650.00
-------------------------------	-------------------------	-----------------

**교우 비즈니스 광고**

<b>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b>	<b>CPA, Cho &amp; Assoc. LLC</b>	<b>박영진 부동산</b>	<b>엠마 스킨 케어</b>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b>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b>	<b>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b>	<b>Pearlshining Photo</b>	<b>퀀텟 용자/부동산</b>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b>KCR MEDIA GROUP</b>	<b>24시간 한국방송 &amp;TV</b>	<b>IRA/401(K)</b>	<b>김현숙 부동산</b>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b>황바로 바오로 CPA</b>	<b>리나 웰니스 클리닉</b>	<b>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b>	<b>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b>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b>동서 한의원</b>	<b>New York Life</b>	<b>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b>	<b>블루밍 치과</b>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b>아틀라스 척추 의원원</b> 14608 Hwy 99 #309 Lynnwood	<b>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b>	<b>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b>	<b>이재호 (베드로 치과)</b>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b>정가네 반찬</b>	<b>황명심 데레사, CPA, CFP</b>	<b>굿닥터 카이로프랙틱</b>	<b>그린 리본 프로젝트</b>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b>희망미디어(Hope Media)</b>	<b>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b>	<b>핸디맨</b>	<b>Bridge Tax Services</b>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b>웅진 코웨이 USA</b>	<b>뉴 해남 식당</b>	<b>Banji (Korean Speed Dating)</b>	<b>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b>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3/26/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4/18/26)

# 레오 14세 교황 선출 1주년 기념 미사 강론

## 주한 교황대사 메시지

(2026년 3월 11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한국의 모든 주교님과 함께 레오 14세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자 이 아름다운 주교좌성당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느님께서 보편 교회에 ‘레오 14세 교황의 교황직’이라는 선물을 주신 데에 감사드리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교황님께서 수행하시는 사명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바치며, 교황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 어린 친밀감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안에는 깊은 감동의 순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신앙의 은총과 교회 안에 머무시는 성령의 빛이 있었기에, 우리가 겪은 여러 신앙의 사건들을 더욱 깊이, 그리고 구원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계획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성령께서 하느님 백성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역이 되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멈추지 않고 여정을 이어가는 신앙인,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신앙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이제 찾을 만큼 찾았다.’라고 단정 짓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한 확신을 가진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조금씩 보여 주시는 그 길을 찾고, 귀 기울여 들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불분명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초대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고, 함께 식별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레오 교황님 역시 한결같이 섬세하며 깊은 성찰이 깃든 리더십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교황님께서 걸어오신 개인적인 삶이 이러한 ‘순례자의 영성’을 잘 담아냅니다. 로버트 프레보스트라는 한 젊은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황을 떠났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들어가 페루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전 세계 수도 공동체를 이끌기도 했고, 마침내 주교가 되었습니다. 북미와 남미, 또 유럽 등 여러 대륙의 다양한 문화를 깊이 경험한 교황님께서 ‘열린 마음’과 ‘만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수많은 삶의 경험이 교황님을 민족과 민족 사이를 잇는 다리로 만들었고, 장벽을 쌓기보다는 경계를 넘나드는 일에 더욱 익숙하게 해주었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보여 주신 교황님의 행보 또한 개인과 민족 사이, 지역과 세계를 넘나들며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생생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신앙의 땅과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평범한 일상, 그리고 고통과 역압의 현장을 가로지르는 길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 모든 국가의 희망이 깃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교황님의 진실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뚜렷한 확신과 진리를 전해 줍니다. 전임 교황님들의 뒤를 따라, 레오 교황님의 목소리도 평화를 향한 ‘위대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오 교황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전쟁의 광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 듯합니다.

이 하느님의 사람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겸손히 요청합니다. 고개를 들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오랫동안 기다려 온 평화의 고지”로 이끄는 길을 다시 찾아보라고 초대하십니다. 교황님께서 “평화의 길이요 전통과 문화 안에서 만남의 언어인 기도와 영성,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를 증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모든 공동체가 ‘평화의 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2026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참조).

“성령께서는 장벽을 허무시고 무관심과 증오의 벽을 무너뜨리신다.”라는 사실을 교황님께서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하

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자 정점으로 삼으신 사랑의 계명”(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강론, 성 베드로 광장, 2025년 6월 8일)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의 삶의 모범은 교회가 권력이나 강한 확신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 겸손한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오늘날 세상은 화합하여 힘차게 나아가려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에게 충실하며, 때로는 기꺼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려는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승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주신 성령에게서 옵니다. 바로 이 확신이 우리를 헛된 생각에 빠뜨리지도 않고, 결코 실망시키지도 않는 참된 희망입니다.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 그분과 일치하며, 레오 교황님의 혜안이 담긴 가르침을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으로 옮겨 봅시다. 교황님의 모범과 가르침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 사랑하는 데 힘과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가 맡은 이 사명을, 교회의 어머니요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전구에 맡겨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황님에게 맡겨 주신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 강림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성모님께서 변함없는 은총을 청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한 교황대사  
+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